

# 서삼석 “어업·여객선 면세유 정책 사각지대”

### 유류비 폭등에도 최고가격제 대상 제외

### 유가연동보조금 적용 촉구 건의서 전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20일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에 어업·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상한제 지정과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서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 유류비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적자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유류비 급등으로 어가 경제 붕괴로 인한 식탁 물가 상승, 여객선 운항 중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다음 달 공급가를 1달 전 가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3월 현재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전인 1월26일부터 2월25일까지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과 대미 환율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돼 200ℓ 기준 17만6천원, 1ℓ당 880원이다.

문제는 3월 말 결정되는 4월 면세유 가격이다. 수협이 제출한 ‘국제유가에 따른 면세유 공급가 추정’ 자료에는 고유가 추세가 계속되면 4월 면세유는 현재 공급가의 2배가 넘는 드럼당 30만원 대 중반, 1ℓ당 1천300원대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면세유 등급이 코앞이지만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정부의 유류비 지원 대책에서 소외된 반면, 일반 과세유와 농업용 면세유는 가격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다.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과세유와 면세유 가격 격차 현상까지 우려되면서 민생 보

호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고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된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화물차 유류비 초과분의 70%를 돌려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시행 중이지만,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또 다시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정부 지원 없이 고유가를 견뎌야 하는 어민과 섬 주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9일 중동 상황 관련 비상 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위기는 언제나 서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국

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유가 위기에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어민과 섬 주민을 위한 특별하고 세밀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4월 면세유 가격이 결정되는 3월26일 전까지 시급히 면세유 가격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가 안정 정책과 함께 초고속 민생 추경을 통해 어민과 섬 주민의 민생 고통타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광주여성단체협의회장 취임식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0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취임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강기정 “중장년 일자리 3천개 창출”

### 송암공원 내 ‘50+캠퍼스’ 조성

### 50+자산은행 도입 생태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가 지난 20일 북구 임동 사회복지회관을 찾아 ‘경력과 경험이 나의 자산이 되고 지역의 성장을 채우는 부강한 50+ 중장년 일자리 3천개 약속’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통합의 이유는 ‘일자리특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광주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5만 중장년의 숙련된 지혜와 기술을 지역 성

장의 핵심 자산으로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중장년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인프라인 ‘중장년 아지트’를 구축한다. 현재 50+센터는 ‘50+ 캠퍼스’로 확장해 민간공원 사업이 추진 중인 송암공원 내에 조성한다.

특히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도 각각 캠퍼스를 운영해 재취업 교육과 정보 공유, 사회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중장년의 경험을 데이터로 등록하고 수요처와 연결해 실제 소득으로 바꾸는 플랫폼인 ‘50+ 자산은행’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단순 노동 위주의 일자리 환경을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전환하고 중장년의 전문성이 공공기관, 기업, 지역 돌봄 등 지역사회 전방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가 수요에 맞춘 3-6개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8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주 3일 내외로 근무하며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라이프 일자리’ 1천600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사회서비스 및 공익형 일자리 고도화와 중장년 창업 및 협동조합 일자리 600개를 더해 총 3천개의 일자리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예비후보는 “중장년의 경험이 지역의 자산으로 축적되고 개인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부강한 일자리특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 강기정,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등록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4시 공식 일정을 마

친 뒤 광주시선관위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강 예비후보는 “통합특별시 출범은 단순히 행정구역의 간판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의 삶의 질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완성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앞으로 4년이 광주·전남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실천 경험으로 갈등을 돌파하고 ‘인(In) 광주, 인(In) 전남’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 전남 16개 시장·군수 경선 후보 확정

### 민주 ‘당원 50%+국민 50%’ 국민참여경선

### 여수·완도·무안은 예비경선으로 후보 압축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확정했다.

22일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수시장 경선에는 김순빈·김영규·백인숙·서영학·이광일·정기명·주종섭(이하 가나다 순) 후보 등 7명이 경선에 나선다.

순천시장 경선에는 서동욱·손훈모·오하근·한숙경·허석 후보 등 5명이 참여한다. 광양시장 경선에는 김태군·박성현·이종재·정인화 후보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나주시장은 윤병태·이재태 후보, 화순군수는 문행주·윤영민·임지락 후보, 담양군수는 박종원·이규현·이재중 후보, 장성군수는 김한중·박원원·소영호·유성수 후보가 각각 경선을 치른다.

고흥군수는 공영민·류제동·박준희·신순식·안정민 후보, 장흥군수는 곽태수·김성·왕윤채 후보, 강진군수는 김보미·차영수 후보, 해남군수는 김성주·명현관·이길은 후보가 경선 후보로 확정됐다.

완도군수는 신의준·우홍섭·이철·지영배·허궁희 후보, 진도군수는 김인정·이재각 후보, 영암군수는 우승희·전동령 후보, 무안군수는 김산·나광국·류준호·이해자·정승욱·최옥수 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된다. 신안군수는 김경화·김행원·박석배·박우량·천경배 후보 등 5명이 경선 대상이다.

경선 후보자가 많은 여수시장·완도군수·무안군수 등 3곳은 예비 경선을 거쳐 후보를 압축한 뒤 본경선을 치르게 된다.

2-5명의 경선 후보자가 확정된 나머지 지역은 곧바로 경선을 치르게 된다.

민주당의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는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국민여론조사 50%)으로 선출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의 후보 간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한편,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 경선은 전경선 예비후보가 전남도의원 연임 도전으로 선화함에 따라 강성희·이호균 후보 간 맞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원익 전남도당위원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경선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원 목포시 5선거구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요청으로 복당했으나 이번 경선 후보자 심사에서 ‘특별 복당’을 인정받지 못해 2% 감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시원기자

##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온라인플랫폼 개설

전남도는 22일 “전남·광주 시·도민 누구나 시민위원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정부가 매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의 특별재정금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전남도와 광주시가 재량껏 가용할 수 있었던 재정이 연간 수백억원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급이다.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은 2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시민의 목소리로 설계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역에 살며 일상의 불편함을 느껴본 시·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양시원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1) 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면 코너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2) 양산동 주거1종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 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급매전문] **즐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